국내 주식전략

2026년 11월 19일

12월 대표지수 정기변경 :KRICS 분류의 첫 적용



김기백
☎ (02) 3772-2649
✉ kibaekkm@shinhan.com

12월 대표지수 정기변경 리뷰: KRICS 영향과 패시브 효과

11월 18일 한국거래소는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날인 12월 11일부터 적용될 대표지수(KOSPI200·KOSDAQ150) 정기변경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변경의 경우 새로 도입된 KRICS 산업분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다.

일부 종목들에서는 KRICS 도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덕전자는 SK와 LG가 빠져나간 정보기술 섹터 내 순위 상승으로 KOSPI200 편입에 성공했고 영풍은 소재에서 정보기술로 이동하며 지수 편출 대상이 됐다.

편출 기업 중 에너지화학 섹터가 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존 소재·유틸리티 소속 종목들이 이동하며 구성종목의 잔류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산업재는 편출입 종목수가 각각 2개로 동일했다. 다만 배터리 장비(SK아이이테크놀로지), 방산(한화머시너리) 기업이 편출되고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산의 수혜를 입은 전력기기 종목들이 편입되며 구성 종목의 성격이 달라졌다.

KOSDAQ150의 경우 티엘비·씨엠티엑스(소부장), 대한광통신(광통신), GST(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AI 밸류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산업분류보다는 심사기간의 시가총액 증감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파두는 편입 조건을 충족했지만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편입되지 않았다.

심사기간 동안 KOSDAQ 시총 10위권 종목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리가켐바이오·에이비엘바이오 등 헬스케어 종목들이 빠지고 주성엔지니어링과 심텍 등 소부장 종목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다만 대표지수 편출입에서는 다른 흐름이 관찰되는데 헬스케어 종목들의 개수가 4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보기술 섹터는 2개 종목이 감소한 가운데 AI 밸류체인 위주의 재편이 이뤄졌다.

대표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KOSPI200을 추종하는 ETF의 자산규모는 43.5조원으로 새로운 대표지수 내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0.11%인 대덕전자에는 5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KOSDAQ150 추종 ETF 규모는 5.4조원으로 KOSPI200에 비해 작지만 편입 예상 기업들의 지수 내 비중이 커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의 유입이 가능하다. 한편 자금의 순유입과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는데 최근 20일 평균 거래대금을 활용해 각각의 패시브 효과도 확인했다. 이번 정기변경은 산업 재분류와 기업의 시가총액 증감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대표지수와 더불어 섹터지수 및 ETF 구성 종목 변화 등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12월 KOSPI200 정기변경 결과

편입					편출	
종목	섹터	유동시총 비중(%)	예상 유입 자금 (십억원)	패시브 효과 (%)	종목	섹터
대덕전자	정보기술	0.11	48.0	29.0	SK아이이 테크놀로지	산업재
일진전기	산업재	0.06	26.0	157.4	한샘	소비재
가온전선	산업재	0.05	20.0	77.8	지역난방공사	에너지화학
두산퓨얼셀	에너지화학	0.04	16.8	132.9	OCI	에너지화학
효성	정보기술	0.03	14.2	613.2	영풍	정보기술
서울보증보험	금융 및 부동산	0.02	9.5	441.6	대한유화	에너지화학
삼아알미늄	소재	0.02	8.5	202.6	TKG휴켐스	에너지화학
SK네트웍스	소비재	0.02	6.9	41.7	대상	소비재
현대지에프홀딩스	소비재	0.02	6.6	322.1	한화머시너리앤 서비스홀딩스	산업재
한국쉘석유	소재	0.01	4.3	160.9	코스모화학	소재
PI첨단소재	소재	0.01	3.2	402.7	아세아	소재
					율촌화학	소재

자료: 에프앤가이드, 신한투자증권 / 주: 예상 유입 자금은 연기금. 인덱스 펀드 등 제외 ETF만 계산, 유동시총비중은 에프앤가이드 기준, 패시브 효과는 최근 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예상 유입 자금 비율

12월 KOSDAQ150 정기변경 결과

편입					편출	
종목	섹터	유동시총 비중(%)	예상 유입 자금 (십억원)	패시브 효과 (%)	종목	섹터
대한광통신	산업재	1.27	68.5	93.1	시노펙스	정보기술
티엘비	정보기술	0.50	26.9	88.8	한컴	정보기술
동국제약	헬스케어	0.46	24.9	218.6	카페24	정보기술
GST	정보기술	0.41	22.1	448.8	큐렉소	헬스케어
스피어	산업재	0.39	20.8	173.8	젬백스	헬스케어
큐리언트	헬스케어	0.36	19.5	847.1	데브시스터즈	미디어·콘텐츠
리브스메드	헬스케어	0.35	18.9	124.4	아이쓰리시스템	산업재
알지노믹스	헬스케어	0.30	16.2	329.9	네오셈	정보기술
제이에스링크	헬스케어	0.29	15.9	596.9	이녹스첨단소재	정보기술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소재	0.27	14.4	523.3	넥스틴	정보기술
씨어스	헬스케어	0.26	14.2	136.7	엔켐	산업재
샘씨엔에스	정보기술	0.25	13.6	82.0	씨앤씨인터내셔널	소비재
에스에이엠티	정보기술	0.25	13.3	321.3	지아이이노베이션	헬스케어
씨엠티엑스	정보기술	0.15	8.3	140.8	가온칩스	정보기술
에이프릴바이오	헬스케어	0.13	7.0	433.9	유진로봇	산업재
아주IB투자	금융 및 부동산	0.10	5.5	157.1	동화기업	소재

자료: 에프앤가이드, 신한투자증권 / 주: 예상 유입 자금은 연기금. 인덱스 펀드 등 제외 ETF만 계산, 유동시총비중은 에프앤가이드 기준, 패시브 효과는 최근 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예상 유입 자금 비율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기백).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